함평 곤충산업 훨훨 날아 오른다

곤충마을·롯데월드 체험관 매출 증가세

군 대표 브랜드 자리잡고 소득창출 기여

함평군이 '블루오션'인 곤충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와 곤충엑스포를 통해 나비와 곤충을 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6년도부터 '나비곤충 클러스터'구축에 나서 ▲나비, 장수풍뎅이마을(해보면 광암리) ▲사슴벌레 마을(월야면 양정리)▲꽃무지(굼벵이)마을(손불면 산남리)▲수서곤충 마을(신광면 가덕리)을 각각지정, 곤충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곤충마을의 매출은 초기 9천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1억, 2008년 5억, 2009년 5억3천만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한 서울 롯데월드 '자연생태체험관'을 개설, 지난 2008년부터 2년 동안 나비곤충 판매 등으로 총 11억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군은 지난 2007년 11월 (주)롯데월드와 롯데월드 내에 자연생태 체험관 개관을 위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곳 자연 생태체험관은 연간 관람인원이 400만명에 이르는 도심 속 생태체험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월드 자연생태 체험관은 1천980㎡ 규모로 살아있는 나비, 곤충 등의 생태전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나비, 곤충 판매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함평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문채 함평 나비곤충마을 협의회 대표는 "나비, 곤충의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엑스포를 통해 곤충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판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양봉산업과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 병해충 방제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시설딸기 56.4ha의 생물적 방제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 양봉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0%씩 성장해 2014년에는 현재의 4배인 100억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평군 곤충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곤충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어 앞으로 곤충산업은 각종 행사 이벤트나 관상용, 애완용, 교육용 등 쓰임새가 다양해 경제적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진도 한과 '꽃단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진도에서 한과를 포장하는 손길이 부산하다. 한과는 진도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구기자, 울금, 흑미(검정쌀)를 사용해 형형색색의 맛과 색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군 제공〉

목포~흑산도 항로권내 4개섬 상징 조형물 설치

목포~흑산도를 오가는 항로상에 위치한 도초 등 4개 섬에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다.

신안군은 최근 목포~흑산 항로에서 섬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좌, 팔금, 비금, 도초 등 4개 섬에 높이 4.5m, 폭 20m 규모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다.

흑산·홍도권역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핵심 관광지이나 목포~흑산 항로에서 관광객들이 쉽게 도서이름을 알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로가시권내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 누구나 쉽게 해상에서 해당 도서명을 알 수 있게 됐다.

상징 조형물은 한글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 제작됐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신안 무인도 실태조사

목포항만청, 연말까지 300곳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신안군내 무인도 3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유지 중심으로 실시되며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개발가능, 이용가능의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당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목포 항만청은 지난 2007~2008년에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 지역 142개, 지난해 완도군 6개면 80개 등 모두 222개의 무인도 실태조사를 벌였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가거도 의용소방대 출범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의용소방대가 출범했다.

목포소방서는 낚시꾼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자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근 15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가거도 의용소방대를 새로 조직했다.

목포에서 뱃길로 131㎞ 떨어진 가거도는 최근 갯바위 낚시꾼의 해상추락과 독실산 등에서 크고 작은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관 목포소방서장은 "사고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가거도에 의용소방대가 출범해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해남 땅끝 모노레일 갈수록 인기

지난해 28만명 찾아 수익 10억원 돌파

해남 땅끝의 대표 관광상품인 '땅끝 모노레일카'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땅끝 모노레일카는 운행첫해인 지난 2006년 6억3천여만원, 2007년 6억3천700여만원, 2008년 6억천여만원 2009년 10억여원 등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땅끝 모노레일 탑승객은 28만1천275명으로 하루 평균 771명, 한달 평균 2만3천440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노레일은 지난 2004년 해남군과 민간업자인 한국모노레일측이 각각 15억7천만원씩 투자해 2005년 12월부터 20인승 2대가 운행되고 있다.

군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운영상황, 수입·지출내역 등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와 보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군은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관리와 홍보 등을 통해 땅끝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어 타지자체에 민자사업 유치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사업초기 땅끝 모노레일은 운영미숙과 제도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간 협의를 통한 상생경영으로 꾸준한 흑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땅끝 모노레일카는 송지면 갈두리 땅끝에서 전망탑 사이 400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1인당 탑승료는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신안 임자 초·중 '유소년 승마단' 한국마사회서 1억 지원 받는다

신안 임자초·중학교 '유소년 승마단'이 최근 한국마사회의 시범지원사업에 확정돼 올해 1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번 지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승마스타 발굴과 청소년 승마체험을 통한 승마산업의 활성화 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지난해 4월 승마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육성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임자 초·중등학교 학생 34명으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람과 말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레저스포츠인 승마를 통해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배양할 수 있다"며 "도서지역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마특성화 학교'육성을 위한 지원협약을 하는 등 학교 스포츠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목포 기초생활권 발전 145개 사업 추진

5년간 2조3천억 투입

목포시가 최근 '생활공감형'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사업을 확정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2조2천685억원을 투입해 ▲서남권 요트정박시설 구축사업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서남권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등 7개 부문 145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개발되는데 이 가운데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7개 부문은 기초생활분야·문화관광·산업경제·보건복지·농림수산·환경·수자원교통 분야로서 주민이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점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7개 TF팀과 35명의 팀원을 구성하고 시민 설문조사, TF팀 워크숍 개최(2회), 사업발굴 보고회 개최(2회), 지역발전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5년 후 국제적인 동북아 해양 관광중심도시 도약과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도시 확립, 친환경 녹색성장 창조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부장	이종태
	정은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조익상 기자
	황운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